

# 행복이 가득한 집

*Best Gift  
Item 38*

선물할 날이 특히 많은 5월,  
어떤 선물로 마음을 전해야 할까  
고민인 분들을 위해 38가지  
베스트 아이템을 엄선했  
습니다. 주방제품부터  
화장품까지 여자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아이가 꼭 알아야 할  
테이블 매너



5

9 771227 115006  
ISSN 1227-1152

3대가 함께 사는 팔판동 한옥, 드라마 <주몽> 작가 최완규 씨의 성공 비결, 여의사의 건강 비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아이 가구, 장안에 소문난 김밥집 베스트 7, 2년 동안 내 손으로 만든 DIY 아파트, 녹차밭 위의 점심 식사  
2007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지상 전시, 자투리 공간 서재로 만들기, 결혼식 위한 패밀리 패션

## Living Design Award

# “아주 특별한 디자인, 그 하나만을 위한 열정에 감동하다” 2007년을 빛낸 스타 디자인

총 4개 부문에 걸쳐 7개 수상 업체를 선정했다. 리빙디자인어워드는 작년까지 ‘에디터스 어워드’라는 이름으로 주요 일간지와 리빙 월간지 기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디자인이나 뛰어난 업체를 선정했던 코너. 올해는 인테리어 관련 월간지 편집장과 패션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등 유명 인사를 초청, 다양한 안목을 통해 수상 업체를 엄선했다.



### 아메리카 하드우드 포럼 대상

미국 활엽수수출협회에서 선보인 아메리카 하드우드 포럼이 영예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 부스는 입구에서부터 어른 키의 세베는 월 범한 초대형 기린 오브제가 현대인의 향수를 자극하는 듯 시선을 끌었는데,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대상에 선정되었다. ‘나무로 재해석한 네오 노스텔지어’를 주제로, 자연의 따뜻한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나무를 재료로 가구이나 작품인 아트 퍼니처를 선보였다. 국내 아트 퍼니처 작가 1세대인 최승천씨 와 2세대인 최병훈씨가 레드오크, 단풍나무, 호두나무, 물푸레나무 등의 미국 활엽수를 이용, 나무 질감의 매력을 멋스럽게 담아낸 목공에 가구는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관람객들의 탐성을 자아냈다.

특히 최병훈씨의 ‘적층 성형 기법에 의한 의자’는 그 참신한 디자인으로 화제에 올랐다. 밴딩 banding 기술을 적용해 단일한 나무 면을 구부려 의자 형태를 만들고, 지렛대처럼 돌의 무게로 별도의 다리 없이 앉은 사람을 지지하도록 한 것. 이는 자연의 특성을 살린 유기적인 디자인과, 절묘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과학적 역학 구조를 동시에 실현한 것이다. 한편 꽃과 새를 모티프로 한 최승천씨의 가구도 따뜻한 컬러와 정감 어린 디자인으로 관람객의 마음을 흔들하게 했다. 이 아트 퍼니처가 전시된 부스는 개성 넘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윤영권씨가 디자인한 것. 심사위원인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씨는 “가구의 창의성이 돋보였고 부스의 공간 활용에 뛰어났다. 전시 콘셉트가 잘 드러나는 완벽한 설치였다”고 평했으며, 헬렌트 김호진씨 또한 이곳을 전시 목적과 공간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으로 꼽았다. 문의 02-722-3685



1,3 최병훈 씨의 가구는 대량생산되는 가구에서 보기 힘든 자연의 질감을 살리면서도, 그 어떤 현대의 참단 디자인 못지 않은 모던함과 간결함을 담고 있다. 2 꽃을 모티프로 한 최승천 씨의 가구. 이 부스의 가구 제작은 영림목재와 벤텁 퍼니처가 함께 지원했다. 4,5 디자이너 윤영권 씨가 대형 기린이 시선을 끈 부스 디자인을 담당했다.

글 손영선 기자 사진 김덕창